

광
야
소
리

정 영 다 학 복 이 파
소 적 음 교 음 땅 위
년 인 세 들 을 의 웨
사 부 대 을 전 모 이
역 흥 의 변 하 튼 뜨
이 을 화 며 청 는
다 위 시 소
한 키 년
! 며 들
에
계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고등부

지난주에는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난 도시의 구석구석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졸업식 때 느끼던 감정과 비슷한....
아쉬움과 감사가 뒤섞인.. !

조금은 멀리 떨어져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더욱 더 좋았던 것은
그 자리를 그 시간들을 나 혼자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순간마다 발자욱 발자욱마다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가만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 잘 보이지 않았던 그분의 모습
우리가 태어난, 거머니 자궁과 같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신...
그 분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우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8 45 .

예 배 순 서

“ ”

- 👤 아침이슬 같은 연주 챔버팀
- 👤 찬 양 찬양팀
()
- 👤 기 도 학생
- 👤 축하와 환영..... 박정수전도사님
- 👤 말 씀 !도배전도사님
(5:1~)
- 👤 소 개 신도배전도사님
(&)
- 👤 헌 금 헌금위원
- 👤 주기도문 다같이

- 👤 기다려지는 광고..... 광고팀
- 👤 소그룹 시간 여라 !!!

우리 약속 하나 할까요?

매일 아침 눈뜨 때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한 마디 하는 것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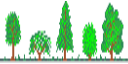
매일 잠자리 들 때마다
하루 동안 동행해주시심을 감사하는 것

죽어야 사는 기간 사순절입니다.
나를 조금만 죽이면 그분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매순간 주님을 기억하는 것

세 가지 중 적어도 하나라도 실천하기로
우리 약속 하나 할까요?

주 말씀에 내 발에 등ियो
나의 길에 빛이나이다.



개역한글	KJV
요한복음 5 :1~	John 5 :1~
1.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1.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2. 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2.Now there is at Jerusalem by the sheep market a pool, which is called in the Hebrew tongue Bethesda, having five porches.
3. 소경, , 헝기 마른 자들이 누워 [의 동함을 기다리니	3.In these lay a great multitude of impotent folk, of blind, halt, withered, waiting for the moving of the water.
4. 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4.For an angel went down at a certain season into the pool, and troubled the water: whosoever then first after the troubling of the water stepped in was made whole of whatsoever disease he had.
5. 기 삼십 팔 년 된 병자가 있더라	5.And a certain man was there, which had an infirmity thirty and eight years.
6. 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6.When Jesus saw him lie, and knew that he had been now a long time in that case, he saith unto him, Wilt thou be made whole?
7. 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7.The impotent man answered him, Sir, I have no man, when the water is troubled, to put me into the pool: but while I am coming, another steppeth down before me.
8. 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8.Jesus saith unto him, Rise, take up thy bed, and walk.
9. !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9.And immediately the man was made whole, and took up his bed, and walked: and on the same day was the sabbath.



친구들 사순절을 아세요???

● 교회 역사에 나타난 사순절의 유래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 일의 기간으로, Lent 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Anglo Saxon 語 lencten or Lenchthen

초기 기독교 시대인 3 |기초까지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2-3 , AD325 |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40 |의 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동방교회 는 7 |간을 지키면서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성주일 만 포함하여 36 , 6 |간을 지키면서 주일을 제외한 36 , 예루살렘 교회는 9 40 |을 지켰는데, 교황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이르러 주일을 제외한 40 , AD 325 | 니케아 종교회의는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된 후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결정하게 됨으로,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하게 되었다. .

사순절은 본래 부활주일 전에 세례 받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사용하였는데, 6 |간 동안의 집중적인 신앙 훈련과 기도, 회개를 통하여 세례 받은 준비를 하였다. 이때 주로 공부하는 내용은 복음서, , 교육과 훈련을 위해 성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완전금식을 하면서 사제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세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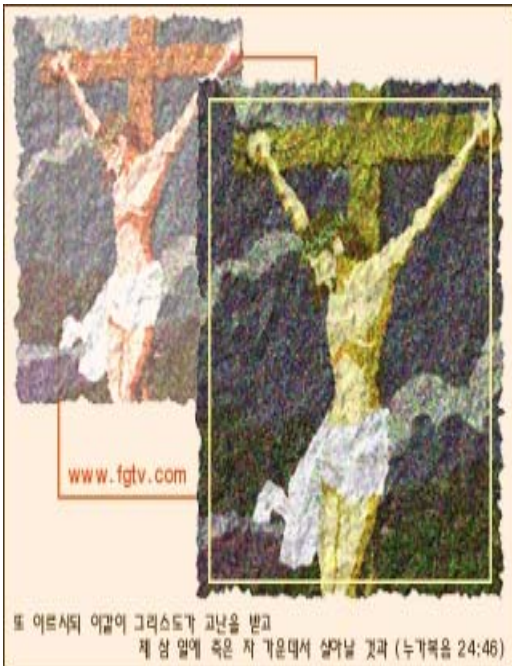
또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회개를 시작하는 날로 정하여, " (ash)" : 머리에 쓰고, 9 |기까지 계속되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사순절 기간동안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도록 되어 있어서, , 달걀로 하루에 저녁한 끼만을 식사하였고, 부활주일이 지날 때까지는 화려한 음악회도 허용 되지 않았고, 오페라도 금지되어 있었다. 이 기간에는 수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념하여 슬픈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기쁨을 노래하거나 화려한 음악으로 되어있는 ' : 하나님의 영광을 장엄하게 노래하는 ' (Gloria)' : 부르지 않았고, , 칸타타 등을 연주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다. 이렇게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사순절을 지키는 방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면발치에서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가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당하신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한다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 형식은 조금씩 달라도 사순절을 위한 영적 훈련의 과정들은 그 범주가 대략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보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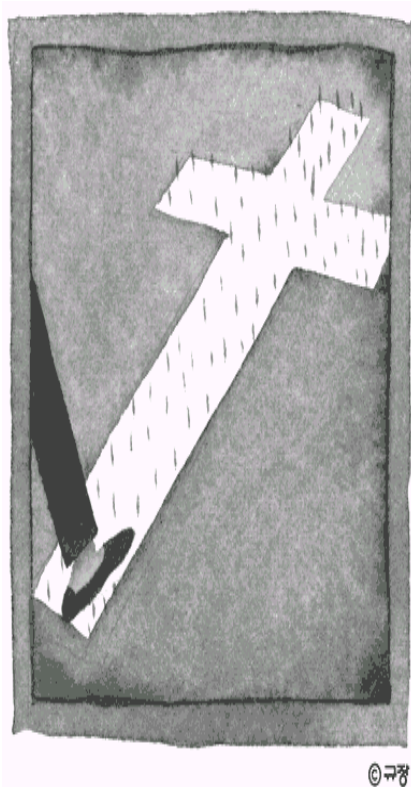
출처: <http://www.cccehc.com/noh/noh-Le01.htm>

? 그렇다면 Ash Wednesday ? 이타
는 다른 Good Wednesday ?
아는 친구들은 메일(mercy@korea.com) ..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켜보는 하루하루이기를...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



작성자 : [ideabank99@yahoo.co.kr]
제목 : Peace Maker . 부르셨어요

내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아!

주님도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게시판을 보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계시(啓示)

" .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5:18-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죄짐을 맡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함이지.

하나님과 회복된 우리를 바로 Peace Maker ! 부르셨고 말야.

우리의 정체성은 Peace Maker!
하나님과 이웃을 화목케 하는 자, 또 세상을 화목케 하는자!

그런데 선생님은 영미 나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진정 안타까울 때가 이런 때야.

연약함 때문에 Peace Maker 본래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 주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눌러 숙고 있을 때지.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흔히 보이더라.

어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단다. 세상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판단하려는 크리스찬을 어린아이라고 바울을 이야기하더라.

" !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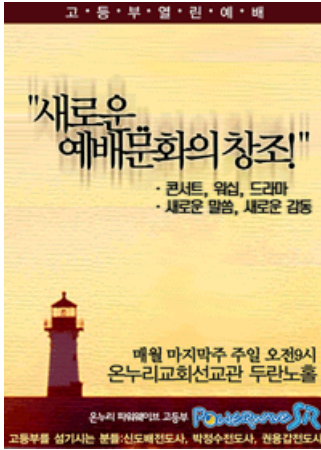
신령한 자는 성령님이 충만하여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라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다.

그렇다면 ' ' ?
그것은 바로 ' (道) .(, 갈라디아서 참조)

친구들 보세요.....



■ 오늘은



- 이번 주일도 지난 주일처럼 광고 후 소그룹만 두란노홀에 남고 모두 조용하게 나아주시기를
- 고등부다윗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멋진 권용갑전도사님에게 연락해주세요. (016-378-5851)
- 새로운 학생과 소그룹편성이 안된 학생은 예배 후 뒤쪽 < Welcome > 글자가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 3 31 7 | 은누리교회본당에서 ccm . 많이 들 참석해주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데려오 시구요...

생님들 보세요.....



- 예배후 교사모임이 있습니다. 302 11 | 20 .

• 1등부 예배
매주일 선교관 두란노홀 08:45

• !기시는 분들
신도배 전도사님
권용갑 전도사님
박정수 전도사님

• !야소리꾼들
광야소리꾼이 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이은주 (5merc@korea.com)